수수료 인하에 가라앉는 카드社… "원가 재산정 필요"

당기순익 전년比 42.9% 감소
소상공인 지원 강화도 한 몫
하반기 인하에도 어려움 호소

1분기 주요 카드사의 실적이 크게 악화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정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 하반기 추가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예고되어 있어 올해 카드사 순익은 전년 대비 급감할 전망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 등 5개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총 38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03억원(42.9%) 감소했다.

우리카드 만이 유일하게 전년 동기 대비 34.1% 늘어난 순익을 기록했고 나머지 4개사는 모두 줄었다.

신한카드는 1391억원으로 전년 동기 4018억원 대비 65.4% 급감했고 하나카드는 500억원에서 255억원으로 반토막났다. 국민카드와 삼성카드 역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16억원(13.9%), 15억원(1.3%) 줄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2013년 1분기 이후 5년 만에 순익이 감소했다.

〈1분기 주요 카드사 당기 순이익〉 /자료=금융감독원

카드사	2018년 1분기	2017년 1분기	증감	증감률
신한카드	1391억원	4018억원	-2627억원	-65.4%
삼성카드	1115억원	1130억원	-15억원	-1.3%
국민카드	717억원	833억원	-116억원	-13.9%
우리카드	393억원	293억원	100억원	34.1%
하나카드	255억원	500억원	-245억원	-49.0%
합계	3871억원	6774억원	-2903억원	-42.9%

◆ 카드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사 실적 급감

다만 분기별 일회성 요인을 감안할 경우 카드사 실적은 크게 달라진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분기 회계기준 변경으로 대손충당금 2758억원(세후)이 환입되어 실적이 급증했다. 당시의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면 올 1분기 순익은 오히려 소폭 늘었다.

하나카드는 지난해 1분기 채권 매각 이익 307억원을 순이익에 포함했다. 올 1분기 이를 제외하면 마찬가지로 실적이 개선됐다.

우리카드는 올 1분기 있었던 배드뱅크 배당이익 100억원을 제외할 경우 전년 동기와 실적 변동이 없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부터 영세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 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에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영세 가맹점은 카드 수수료율이 0.8%, 중소 가맹점은 1.3%를 적용받는다. 낮은 수수료율을 받는 가맹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입이 줄 수밖에 없다.

당국은 당시 영세·중소 가맹점의 기준 확대를 추진하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이 3500억원 가량 경감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지난 2월 시행된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역시 올 1분기 카드사의 실적 악화 요인으로 꼽힌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작용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된다"고 말했다.

◆ '보릿고개' 하반기…수수료 감소폭 확대 전망

문제는 올 하반기다. 카드사들은 하반기 닥쳐올 또 한 번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오는 7월부터 슈퍼, 제과점, 편의점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가 평균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또 연말에는 카드 수수료의 원가 재산정 작업이 추진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3년 주기로 조달금리, 운영 및 관리 비용을 따려 전체 카드 가맹점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은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 원가 역할을 담당한다. 적격비용의 하락은 수수료율 인하로 연결된다. 지난 2015년 적격비용 재산정 당시 카드사는 영세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한 바 있다.

카드업계는 현재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협의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린 상황. 오는 10월쯤 적격비용을 제출하고 12월쯤 심사한 뒤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최근 들어 거의 반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제대로된 적격비용 산출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내일채움공제' 오늘부터 단독 판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를 9일부터 은행권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의 근로자가 일정비율로 공제금을 5년 동안 공동으로 적립하고, 만기에 공동적립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인센티브)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상품이다.

기업이 부담한 납입금은 전액 비용처리 가능하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돼 이 상품을 가입한 기업은 납입금액의 25%를 세액공제 받는다.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에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하고, 기업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기업은행의 전 영업점에서 가입이 가능하게 돼 가입을 원하는 기업들이 보다 쉽게 상품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가정의 달 대고객 이벤트

NH농협은행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달 말까지 '가정의 달 대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오~오~(555명 추첨) 온가족이 다(多)함께 행복애(愛) 빠지다!'를 주제로 농협은행에 세대주·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고객이 행사기간 중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상품(예·적금/펀드/신탁 중 1개 이상, 주택청약저축 포함)에 신규가입한 경우 세대주 고객 이름으로 자동 응모된다.

응모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555명에게 백화점상품권(50만원), 홍삼정(240g), 외식상품권(5만원), 모바일주유권(3만원) 등 경품을 제공한다. 6월 셋째 주 중에 농협은행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공지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H수협은행 주택건설 지원 상품 출시

Sh수협은행은 8일 소규모 주택건설 전용 신상품 'Sh 안전협약 주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건설자금보증서를 담보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주택건설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Sh수협은행은 이에 앞선 지난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소규모주택 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Sh 안전협약 주택보증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발급받아 서울·경기·광역시를 포함한 인구 2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채신화 기자

VAN사 순익 1797억… 전년보다 10% ⬆

〈부가통신업자〉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이익 늘어
중계수수료 수익은 1.3% 감소

지난해 부가통신업자(밴·VAN사)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3개 밴사의 순이익은 1797억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이익이 늘었다.

등록된 밴사는 24개지만 이들 13개 밴사가 전체 밴사업 수익 중 99.4%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6.8% 늘어난 2조1344억원으로 집계됐다. 밴상품과 기타사업에서 수익이 주로 늘었다.

다만 주요 수익원인 중계수수료 수익은 1조1508억원으로 거래건수 증가에도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영업비용은 1조9011억원으로 단말기 교체 관련비용과 모집인수수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재무상황은 양호하지만 성장세는 다소 둔화됐다.

〈VAN사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16년(A)	17년(B)	증감(B-A)	증감률
영업수익	19,911	21,344	1,353	6.8
VAN사업 (상품, 중계 등)	14,028	14,073	45	0.3
기타사업 (PG 등)	5,963	7,271	1,308	21.9
영업비용	17,706	19,011	1,305	7.4
상품	1,875	2,544	669	35.7
모집인수수료	6,083	6,309	226	307
가맹점관리 등	425	311	△114	△26.9
영업이익	2,285	2,333	48	2.1
당기순이익	1,638	1,797	159	9.7

자산은 1조9966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대리점에 대한 가맹점 모집 관련 프로모션이 줄면서 현금성 자산이 다소 늘었다. 다만 자산 증가율은 5.9%로 전년 대비 2.6%포인트 낮아졌다.

부채는 6799억원으로 부동산 구입 관련 장기차입금이 늘면서 전년 말 대비 4.2% 증가했다. 자본은 전년 말 대비 6.8% 늘어난 1조3167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 거래건과 가맹점, 단말기수는 모두 늘었다.

카드 거래건수는 159억 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가맹점수는 245만 개, 단말기수는 304만 대로 전년 대비 각각 4.3%, 4.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환경 변화에 따른 밴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밴 영업비용 체계를 개편해 밴 수수료 합리성 제고 및 결제시장 참여자 간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SC제일은행 마이줌통장 신규가입 '연1.7%' 특별금리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 29일까지 입출금통장 'SC제일마이줌통장'에 신규 가입하면 최대 3개월 동안 최고 연 1.7%(이하 세전)의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이줌통장은 고객이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 유지 가능한 금액을 직접 설정하고, 설정 금액만큼 잔액을 유지하면 연 1.5%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벤트 기간 내 마이줌통장을 개설하고 설정 금액만큼 잔액을 유지하는 고객은 0.2%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더해져 연 1.7%의 특별금리를 받게 된다.

5월 가입 고객은 7월 말까지, 6월 가입 고객은 8월 말까지 특별금리를 받는다. 이번 이벤트에서 제공하는 연 1.7%의 금리는 CMA, 인터넷은행의 고금리 입출금통장 등과 비교해도 금융권 최고 수준이라고 SC제일은행 측은 전했다.

마이줌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정기예금 수준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일별 잔액을 기준으로 매일 금리가 결정된다. 고객은 설정 금액을 월 단위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지난 해 10월 말에 선보인 마이줌통장은 '파킹통장'으로 주목 받으면서 출시 1개월 만에 예금 잔액이 1조원, 출시 4개월 만에 2조원을 돌파했다.

김용남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이사는 "안전하면서도 높은 금리로 여유자금을 운용하다 새로운 자금 용도가 생기면 언제든지 인출을 원하는 고객이나, 현재 여유자금을 저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있는 고객에게 이번 마이줌통장 특별금리 이벤트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